강진소방서,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개최

강진소방서(서장 정용인)는 제79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의 화재예방 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어린이 불조심 손그림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들이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스스로 생각하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해 일상생활 속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공모기간은 11월 1일부터 26일까지이며, 참가 대상은 강진군 소재 초등학교 재학생이다. 공모 주제는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자유로운 내용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4절 크기(가로 39.4cm × 세로 54.5cm)의 손그림 포스터를 제작해 강진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출품 작품은 1인당 1점으로 제한된다.

접수된 작품은 강진소방서 자체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 1점을 선정하고, 해당 작품을 전남광주소방본부에 출품할 예정이다.

전남광주소방본부에서는 각 소방서에서 출품한 우수작을 대상으로 최종 심사를 실시해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 장려상 18점 등 총 22점의 우수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용인 강진소방서장은 "어린이들의 창의적인 시선으로 표현한 화재예방 메시지가 지역사회에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어린이들이 일상 속 화재예방을 실천하고 안전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061-430-0863)로 문의하면 된다.이번 공모전을 통해 어린이들의 창의적인 화재예방 메시지를 알리고 생활 속 안전의식과 화재예방 문화를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운재 기자



2026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무안골 송년행사 개최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병순)은 지난 6일 복지관 3층 강당에서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과 함께 한'2026 무안골 송년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 산 군수 및 양영복 군 의회 부의장, 고성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을 비롯한 내빈과 지역주민 3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온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성과를 함께 나누었다. 청소년 댄스프로그램 '일로팝'의 활기찬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이 진행됐으며,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진 작품 발표회에서는 음악난타와 판소리 공연 등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며 다채로운 무대를 펼쳐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용운 기자

목포시,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기준 변경 안내



목포시청 전경 사진 /목포 시청 제공

목포시(시장 강성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11월 6일부터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수의계약의 체결 제한 기준이 변경된다고 안내했다.

이번 개정은 동일 회계연도 내 동일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것으로, 시·군·구에 해당하는 목포시는 동일 업체와의 계약을 연간 5회 이하, 계약금액 합계 2억 원 이하로 관리해야 하며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이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추정가격 200만 원 미만인 공사 계약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목포시는 개정된 기준이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수의계약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성태 기자

함평군 월야면, 독거 어르신 가구 주거 환경 개선 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월야면이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펼쳤다.

함평군은 8일 "월야면 복지기동대가 이날 관내 홀몸 어르신 가구에서 주거 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거동 불편으로 인해 폐기물을 배출하지 못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독거 어르신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월야면 복지기동대와 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직원들은 독거 어르신 가구에 방치된 생활폐기물을 수거해 분리배출하고 어르신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왔다.

정정오 월야면 복지기동대장은 "쓰레기로 가득 차 발 디딜 틈 없던 집이 깨끗해진 것을 보니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세심하게 살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나눔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

/이문수 기자

영암군, 2026년산 공공비축미곡 12,219톤 매입

영암군이 2026년산 공공비축미곡 12,219톤을 매입한다. 매입물량은 산물벼 2,905톤, 건조벼 5,771톤, 친환경벼 1,689톤, 가루쌀벼 1,854톤이며, 매입 품종은 '새청무'와 '영호진미'이다.

산물벼는 지난 10월 6일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지정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에서 매입한다. 건조벼는 11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읍·면별 지정 장소에서 매입할 예정이다.

농가는 출하 전에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을 통해 출하 날짜와 장소를 확인하고, 매입 품종과 수분함량, 포장규격 등 검사기준에 맞춰 벼를 준비해야 한다.

매입대금은 조곡 40kg당 중간정산금 6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 지난해보다 2만 원 인상된 금액이다. 최종 매입가격은 10~12월 전국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하며, 중간정산금을 제외한 차액을 추가 지급한다. 이번 매입은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철 기자

신안군, 150년 역사 노만사 대웅전 낙성식 개최

신안군 향토전통사찰 제1호인 노만사가 대웅전 건립을 기념해 낙성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성 신안군수를 비롯해 불교계 관계자와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새로운 대웅전의 출발을 축하했다. 1873년 창암 화상이 창건한 노만사는 15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사찰로, 2000년 신안군 향토전통사찰 제1호로 지정됐다.

기존 석조 대웅전은 이번 건립 사업을 통해 한국 전통 목조건축 양식으로 새롭게 조성됐다. 신축 대웅전은 정면 3칸·측면 2칸 규모로, 다포식 구조와 겹처마 팔작지붕을 적용해 전통 사찰 건축의 아름다움을 살렸다.

신안군은 이번 건립을 계기로 지역의 소중한 불교문화와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전승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태 기자

